

[그말씀 설교 2]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본문] 행 16:19~34 / 김선도 목사 / 페이지 수: 6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행 16:31).

지난번 교역자 금식기도회 때에 기도공원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청년이 그 빈 무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선교회 모임에 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면서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가졌다가 선교회에 갔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구원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재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이 시대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곧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도도한 것 같아서 겸손한 마음에서 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진수의 복음을 알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변의 얘기로만 만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럽전도를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까닭에 그곳에 가면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빌립보 동네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 다니면서 그들을 향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라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악령이 더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자꾸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수입을 많이 올려 주인을 이롭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가 너무 불쌍해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몰았습니다. 그가 제 정신을 차리게 되자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상관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몹시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태연하게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들이 갑자기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깨어보니 옥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죄수들은 중형을 받은 죄수들인데 이들을 놓치면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간수는 칼을 빼어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켜서 들어가보니 쇠고랑 이 다 끊어

지고 옥문이 열려져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상처를 깨끗이 맞기고 그런 후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간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무릎을 꿇고 고백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김현희가 쓴 책이 일본말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김현희는 그의 행위로 말하면 당장에 사형선고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기도 대단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의 행위로 말한다면 사형이지만"나는 과거의 죄를 통회 자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집도 마련해 주고 갖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법으로 말하면 사형선고를 받을 사람인데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보아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죄투성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우 간단한 진리입니다. 금식기도를 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민국에서 뿌리는 유인물보다 더 못 믿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의하면 '큰 재난과 위험과 파멸에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라고 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에 구조대가 그를 구출해 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용기 있는 소방수가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출해 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기업가가 부도를 내고 쓰러지기 직전에 친구가 많은 재물을 도와 주어 그를 사업의 실패에서 구출해 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믿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절망적 인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던 자신이 빛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영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점잖은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주저합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의심을 가져오게 됩니

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시간을 대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혹받지 마십시오. 구원이란 것은 날짜나 시간,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네 명의 손자를 가진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된 것은 갑자기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수영이 나고, 외모가 달라져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손자가 태어나 내 손자와의 새로운 관계성 때문에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물론 극적인 체험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불빛 가운데 거꾸러졌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여, 뉘시오니까?" 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를 발견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것처럼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순수했고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갖춘 디모데를 바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처럼 다메섹에서의 체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구원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다고 해서 디모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뿔뿔해서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후 커튼을 젖히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소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됴이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는 동안에 내가 과거에 갖고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된 구원받은 사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초조해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필요없다. 내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자기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정성과 내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적 실존철학자인 베르그송은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성직자에게 가서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소속의 욕

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에 어딜 가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둘째, 의미의 욕구입니다.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부에게 일당을 줄 테니 마당에 우물을 파라고 했습니다. 인부는 땅을 뽀뽀 흘리며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더니 또 다른 곳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 때 인부는 주인에게 "여보시오 일을 똑똑히 시키시오. 이렇게 일을 시키는 법이 어디 있소? 일의 보람이 있어야지요."라고 삽을 내던지고 가버렸습니다.

단순히 땅을 파는 일꾼이라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으면 동물보다 못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속해 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 할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주님께 속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대낮에 고아와 부모 있는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해가 지자 부모 있는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모 없는 고아들은 저녁 때가 되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지?" 주인 없는 인간도 고아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10:9).

예수님이 내 구주신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쇠고랑을 끊어주시고, 옥문을 열리게 하십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간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랑의 집' 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20년, 30년을 더 살 텐데 암 때문에 한달 사실 분도 계실 것이고, 두달 사실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두달을 살되 양적인 시간으로 살지 아니하고 미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어맡기고, 죽음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죽음도 주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달 동안은 20년 같이 살다가 가도록 하는 신앙의 집이 바로 '호스피스'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10살 난 메어리 윌슨이라는 소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다에 점점 깊이 들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죽음,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마리의 후조 떼가 레이더도 없고 누가 신호를 보내는 것도 아닌데 2천 마일을 날아가 하와이에 가볍게 내려앉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새들도 목적지에 이르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미래를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 여러분의 미래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확신이 여기에서 생깁니다."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8).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미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따를 때에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 터가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죄와 악령에 붙잡혀 있던 내가 그 쇠고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온전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점치는 여자에게서 악령을 내어들을 때에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여러분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서 임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늘을 향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을 믿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레닌그라드에 가서 성 아이작 템플이라는 러시아 정교회의 사원을 가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로 그 가운데에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지구를 만들어 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 그것을 모두 치워버리고 대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아름다운 초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배자는 과학이 아닙니다.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종시에 있는 환자에게 가면 십자가를 꼭 목에 걸어주든지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 그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십자가를 붙들기 전에는 죽음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오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체험을 한 사람

바울과 실라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간수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매로 찢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변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보다 물질적인 문제가 앞서게 되면 이 변화가 자꾸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에트 블럭에서는 공산주의의 박해로 종교를 싫어하게 만들었고, 서구 사회에서는 삶의 의미를 물질적인 행복의 추구로

종교를 약화시켰다." 오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오신 여러분은 1년,2년 지나는 동안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변화가 아닙니다. 캄캄한 밤이 갑자기 환한 대낮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점점 내양심이 달라지고 의식구조가 달라져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인간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질 추구로부터 방향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문제가 쓰레기 공해입니다. 세계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부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 전 세계 잼버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을 때 독일 잼버리 회원들이 자기 나라에서 하던 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가 오더니 그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몽땅 한꺼번에 모아서 거두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다가는 환경오염이 독일에까지 미친다고 본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 측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항의한다고 별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 교육부터 잘못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훈련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흔들릴 때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의 생활 쓰레기도 문제지만 삶의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악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수거할 것입니까?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쓰레기는 다 소각되고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영의문제,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가 뉴욕에 가려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런데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뉴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뉴욕행 표를 사지 않았느냐"고 대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뉴욕에 가 봐야 알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마치 미래에 천국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예수님의 티켓을 사놓았는데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흑암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김선도 목사 / 광림교회 원로목사>

* 출처 : 그말씀